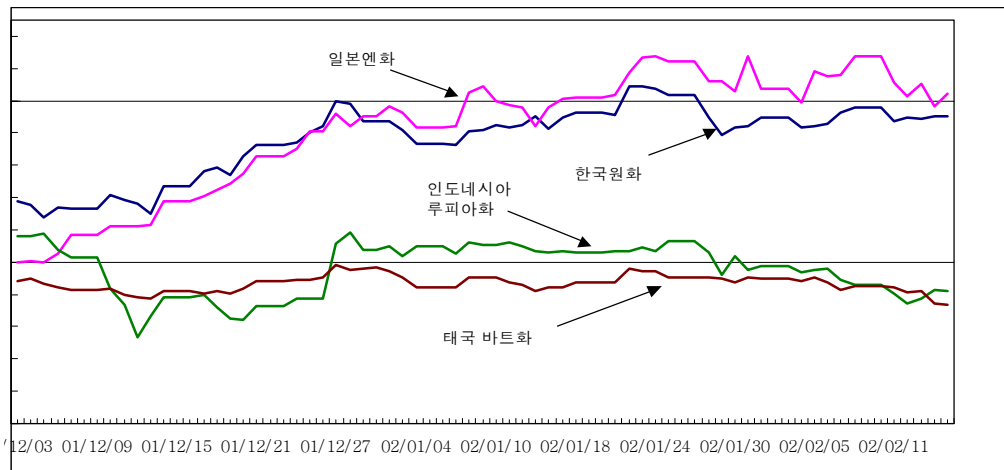


중국 위안화, 엔저 영향 미미

□ 최근 엔저 여파로 우리나라 환율 동반 상승

- 2001년 달러당 115~125엔 수준을 유지하던 일본 엔화가 경제 침체로 2002년 1월 135엔 수준까지 상승
- 엔저 여파로 일본과 경쟁관계가 심한 우리나라의 달러당 원화 환율 가치 동반 하락 (2001.12 : 1,313원 → 2002.1 : 1,331원)
 - 대만,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경우, 일본과 수출상품 구조가 달라 엔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.

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 추이
(2001. 12 ~ 2002. 1)



* 2001년 12월 시점 해당 통화를 기준으로 한 환율 변동

□ 그러나 위안화 환율 여전히 안정적 전망

- 엔저에도 불구하고,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8.27에서 안정적인 수준 유지

- 향후에도 중국 위안화 환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,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.

- ▶ **아시아 경제의 리더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** :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에도 중국 위안화는 안정 지속 속에 오히려 소폭 절상

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추이

| | 94 | 95 | 96 | 97 | 98 | 99 | 00 | 01 | 02/1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미달러당 환율 | 8.6187 | 8.3174 | 8.2982 | 8.2798 | 8.2787 | 8.2795 | 8.2774 | 8.2765 | 8.2766 |

- ▶ **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우려** :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2001년 468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대비 14.9% 증가
- ▶ **엔저의 직접적 영향 미미** : 중국과 일본의 상품구조가 상이한데다가 엔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
 - 중국 : 의류 등 경공업, 가전
 - 일본 : 전자통신, 철강, 반도체, 조선
- ▶ **위안화 절하를 통한 중국 수출 증대 미약** :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전체의 환율 상승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위안화 절하의 실익 상실
- ▶ **엔화의 급격한 절하 없이는 일본 경기부양 효과 한계**
 - 일본의 GDP 대비 수출의존도는 11%로 우리나라(45%), 중국(25%), 대만(54%) 등에 비해 낮은 수준
 - 경기부양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달러당 170엔까지 상승할 필요(엔화 10% 상승→물가의 0.3% 상승 추정)
- 따라서 최근 중국은행 리자오항 부행장의 엔저 지속시 위안화 절하 필요성 언급은 엔저 지속 우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이해할 필요

- 아시아 주요 금융기관들은 달러당 최소 150엔까지 상승하고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 동반하여 상승하지 않은 한,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(홍콩 맥쿼리은행, 싱가포르 웨스트은행 등)

문의 :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☎ 3779-6647, jykim@koreaexim.go.kr
차 장 전선준 ☎ 3779-6650, jsjun@koreaexim.go.kr
대 리 이지언 ☎ 3779-6655, jeyi@koreaexim.go.kr